

중구뉴스



www.
junggu.ulsan.kr

2017 울산마두희 축제 '성료'

중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착착"



울산의 정기를 끌어오던 전통놀이 ‘마두희’

울산마두희축제는 300여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동헌 앞에서 했던 대동놀이입니다. 마두희는 말머리 놀이라는 의미로 울산의 주산인 동대산과 무룡산의 형상이 말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방어진 앞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으로 울산의 정기가 바다에 함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의 큰 줄당기기는 줄을 걸어 말머리를 육지쪽으로 당겨 잡아 오자는 뜻에서 줄을 당겨 지역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했던 전통놀이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 열렸으나 일제강점기 주민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면서 중단됐고, 80년 만인 2012년에 복원됐습니다. 전통의 방식인 새끼를 한올한올 꼬은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 마닐라 로프 등을 활용해 만든 마두희 큰 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 했습니다.

울산의 정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던 울산만의 축제에서 한국의 정기를 보존하고 외국의 정기마저 끌어올 수 있는 전 국민과 세계인이 모두 즐기는 축제가 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도시 중구, 축제로 들썩였다

- 04 2017 울산마두희 축제 ‘성료’
- 07 마두희 관련 인터뷰
- 중구청장
- 08 마두희 먹고, 놀고, 즐기자!
-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긴다
- 10 2017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대성황’
- 12 중구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7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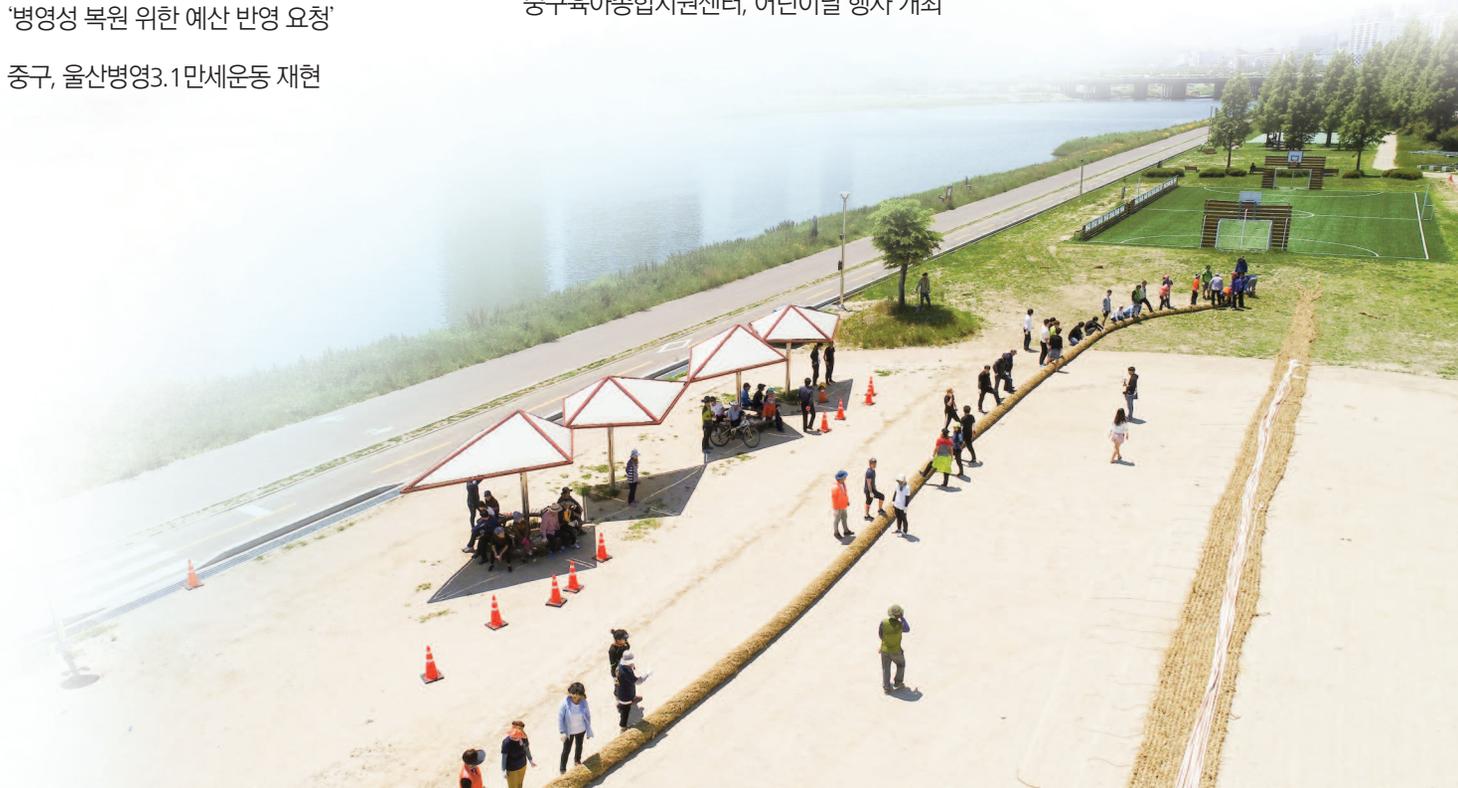
문화관광도시로의 꾸준한 발걸음 '중구'

- 14 울산 중구 관광 '울산큰애기'가 알린다.
- 15 문화관광도시 중구, 미소로 업그레이드 한다.
- 16 "중구 관광 잠재력 인정받다!"
- 17 중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착착"
- 18 방치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본격 가동
- 19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밀그림 그린다.
- 20 '병영성 복원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21 중구, 울산병영3.1만세운동 재현

구민이 행복한 으뜸 '중구'

- 22 중구, 제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3 중구, 2017년 상반기 일자리채용박람회 '성황'
- 24 "올 여름 더위도 울산 중구에 맡기세요."
- 26 안전 중구
- 중구, 산전배수장 이전증설 완료 외
- 28 중구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개최
- 29 2017년 종갓집 중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날 행사 개최

- 30 우리가 본 중구
- 32 중구의회
- 34 생활정보





2017 울산마두희 축제 '성료'

2017 울산마두희축제 2일부터 3일간 48만여명 방문
문화의거리, 태화강변 등서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풍성
큰 줄당기기 유료화에도 참가자들 '만족'... 강변 씨름대회로 의미 더해





울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중구지역 최대 규모의 축제인 '2017 울산마두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3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큰 줄당기기(마두희)는 기존 원도심에서 태화강변까지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유료화 전환에도 이미 수 천명이 참여해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울산마두희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중구 문화의거리와 성남동 태화강변 일대에서 열린 '2017 울산마두희축제'에 전국에서 찾은 4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울산마두희축제 당시 35만여명이 방문한 것보다 13만여명이나 많은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마두희축제는 기존과는 달리 단오 행사의 일환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단오(5월 30일)에 맞춰 열렸으며, 참가비를 받았음에도 태화강변 등지까지 확장된 공간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메인 행사인 큰 줄당기기의 참가신청 시 6,000원을 받았으나 전체 3,000여명이 신청하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참가비를 낸 방문객들에게는 큰 줄당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5,000원 상당의 마두전과 기념티셔츠, 기념품을 제공했다.



올해 처음 행사가 진행된 태화강변에서는 축제 첫 날인 2일 큰 줄의 비녀목 설치와 웅선체험을 비롯해 3일과 4일에는 종갓집 씨름 한마당, 인디밴드 공연, 불꽃축제 등이 열렸다.

첫날 화전놀이를 시작으로 3일 전국소리경연대회와 해설이 있는 원도심 투어, 4일 영남한복패션쇼와 단오맞이 종갓집 씨름 한마당 등이 진행돼 마두희축제의 의미를 더 했다.

큰 줄당기기에 사용될 줄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비녀목이 올해 처음 강변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메인거리인 문화의거리와 젊음의거리, 울산동헌 등 원도심 곳곳에서는 더욱 다양해진 행사로 축제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 울산초등학교 맞은편 문화의거리 메인무대에서는 개막 주제공연과 축하공연 등이 열려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 둘째 날인 3일 시계탑 일원에서 메인 행사로 열린 울산 큰 줄당기기에는 인터넷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참가비를 내고 참여한 2,000명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열띤 승부를 벌였다.

불꽃 튀는 경기는 첫째 판은 동군이 이겼으나, 둘째, 셋째 판을 내리 이기며 서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축제의 참여자들은 동군이 이기면 가정의 화목이, 서군이 이기면 금전운이 들어온다는 설처럼 올해는 축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금전운이 더 해지길 기원하기도 했다.

저녁 늦은 시간 젊은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한 마두희 DJ난장쇼로 인해 원도심은 커다란 클럽이 됐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울산큰애기 선발대회에 이어 영남한복패션쇼, 마두희 가수왕 선발대회가 열려 곳곳에서 웃음꽃을 피웠다.

울산큰애기 선발대회에서는 울산큰애기 엄마와 이모, 큰애기는 물론, 울산큰애기커플상을 통해 모녀와 연인 등을 선발하면서 올해 중구의 대표 캐릭터로 선정된 반구동 처녀 울산큰애기를 널리 알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000명 돌파 시 중구청장과 춤을 추겠다고 공약했던 울산큰애기가 박성민 중구청장, 울산대학교 댄스팀 등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을 가져 환호를 받기도 했다.

3일 동안 골목 곳곳에서는 나이, 동별 등으로 줄당기기가 진행됐고, 전문거리공연과 도호부사 행차, 마두랑 시민 퍼레이드, 프린지 공연, 울산동헌 문화마당 등이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했다.

전통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나도 울산큰애기 체험행사에는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들도 참여해 한복의 우수성을 느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원도심 상점가에서 20% 할인도 진행해 즐거움을 배가 시켰다.

원도심 일원의 참여 업소와 태화강변 푸드트럭존, 울산큰애기야시장 내 22곳의 매장 등 100여곳의 상점가가 마두희기간 동안 화폐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마두전을 받아 참여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태화강변과 원도심 일원에서는 구워봐 장터, 세계의 먹거리, 팔도장터, 꼬지&치맥 페스티벌 등도 개최되면서 축제의 먹는 재미를 증가시켰다.

특히, 3일 동안 중앙동 주민센터부터 KB국민은행 앞까지 도로를 통제하고 마련된 중앙로 먹거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몰려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두희축제의 또 하나의 추억을 선사했다.

태화강변에서는 폐막식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INTERVIEW

“울산 대표 축제를 넘어 전국 유망 축제로...”

Q 울산마두희축제만의 매력은?

A 중구의 축제는 2001년 차없는 거리축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태화강 문화거리축제, 울산중구 문화거리 축제 등으로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명칭이었고, 중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콘텐츠가 필요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에서 과거 선조들이 동헌 앞에서 했던 대동놀이인 울산의 큰 줄다리기를 발견했습니다. 300여년전부터 행해져 왔던 역사성과 종루 앞(현. 시계탑 사거리)에서 열린 장소성, 수천명이 동·서군으로 나눠 참여한 주민참여 축제이기 때문에 기본 3요소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성을 확보한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줄다리기 축제라는 점이 큰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Q 올해 특히 신경썼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A 축제 참가자에게 좋은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두희축제 전체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어느때보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롭고 풍성하도록 마련했습니다. 대표로 몇 가지 소개하자면 3일 간의 축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기원행사가 첫날 동헌에서 열렸습니다. 이후 태화강변으로 2015년 마두희축제에 사용한 비녀목을 운반해 심는 퍼포먼스도 진행돼 볼거리를 더 했습니다. 이튿날인 6월 3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울산 큰 줄당기기 '마두희'가 300여년전 열렸던 시계탑 사거리에서 2,000천명이 참여해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셋째 날은 '울산큰애기 선발대회'가 메인무대에서 전개됐고, 과거 일제 강점기까지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가 열렸던 태화강변에서 동대항 씨름대회도 열려 의미를 더 했습니다.

Q 올해부터 참가비를 받은 이유는?

A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야 말로 마두희축제가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판단해 고심 끝에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큰 줄당기기 참가비 6,000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참가비가 아깝지 않도록 축제 기간 화폐와 같이 통용되는 5,000원 상당의 마두전과 기념티셔츠를 제공하고, 그 외 기념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쿠폰 등도 발급했습니다. 5월 말까지 2천500여명이 접수했습니다. 축제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냄으로써 축제의 추세가 돼 축제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주민주도형 축제로 도약해 더 뜨거운 축제의 열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방안은?

A 울산마두희축제는 큰 줄당기기 외에도 불꽃놀이와 씨름대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대거 확충했고, 울산큰애기야시장과 푸드트럭이 들어서 추가로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밭, 장미축제 등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도 거뒀으며, 울산시에서도 울산방문의 해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4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중구는 오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됐고, 2017년 열린 관광지로도 선정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 만큼 이를 활용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울산의 대표축제를 뛰어 넘어 정부 주관 전국 유망 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마두희.. 먹고, 놀고, 즐기자!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긴다!



변연구(63, 서동)씨는 "울산마두희 축제가 많이 변한것 같다. 볼거리가 많이 늘었고, 행사장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태화강변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잘 되었으면 한다.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희정(18, 달동)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덩치만 축제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재밌고, 마두희 캐릭터가 귀여워서 함께 사진도 찍었다."



동호회 줄다리기 분야에 참여한 울산고블린팀의 캐나다인 마이크(Mike, 28)씨는 "자주가는 호프집 외국인 사장님의 소개로 울산마두희축제 줄다리기에 참여했다. 처음엔 긴자오였는데 경기를 해보니까 흥분되고 재미있었으며,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 더 뜻깊었다. 둘째 날 저녁에 축제를 돌아봤는데 라이브 뮤직 등이 있어 분위기가 더 좋았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울산마두희축제에 대한 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이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울산큰애기 선발대회에 참여해 대상으로 선정되며 상금과 함께 중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차송정·박지희 모녀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한 울산큰애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돼 기쁘다. 울산 중구를 알리는 울산큰애기로 선출된 만큼 문화관광도시 중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동별 줄다리기 남자 부문에서 우승한 다운동의 이관훈 (41)씨는 "동대항 줄다리기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더욱 친해졌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강변에서 열린 종갓집 씨름 한마당에서 초등부 우승을 차지한 방어진초등학교의 최윤서 (6학년) 군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을 수 있는 태화강변에서 울산지역 초등학교가 함께 모여 씨름대회를 가지니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두 딸과 함께 축제에 나와 소원의 벽에 글을 적었던 최윤철(북구 매곡동)씨는 "이전에도 축제를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려 나오지 못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며 이런 축제를 보고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함께 참여했다."



마두희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종갓집 씨름 한마당에서 동별 최종 우승을 한 병영2동 윤상영씨는 "마두희 축제에 함께 한 첫 번째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돼 영광이다. 2대 2 팽팽한 상황에 나와 승부욕을 불태웠고, 긴장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근성으로 이길 수 있어 정말 기쁘다."

2017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대성황'



'사라 맥켄지', '베니 베텍' 등 해외 4팀...
국내 재즈 11개팀 참여

2개 무대에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주말 저녁 즐기기 위한 3만여명 다녀가

울산의 종갓집 문화도시 중구가 감미로운 재즈선율을 듣기 위한 시민들로 넘쳐났다.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중구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과 나비마당 등에서 열린 2017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온 3만명의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음악회는 국내외 유명 전문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11일부터 4일간 진행돼 50만여명이 다녀간 태화강대공원의 봄꽃대향연 기간 중에 개최해 봄꽃의 정취와 수준 높은 재즈공연이 어우러진 힐링의 기회가 됐다.

태화강변의 밤을
재즈로
물들였다



울산의 종갓집 문화도시 중구가
감미로운 재즈선율을 듣기 위한 시민들로 한바탕 들썩였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 밴드 11팀과 해외 밴드 4개팀 등 전체 15개 팀이 참여해 늦은 봄 태화강변의 밤을 재즈로 물들였다.

현재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재즈 그룹 중 하나인 '알렉스 시피아진 퀘벳'의 현대적인 느낌의 재즈 공연과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재즈 밴드 중 한 팀인 네덜란드 3인조 그룹 '유러 피안 재즈 트리오'의 로맨틱한 재즈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또 호주출신 차세대 여성보컬 리더 '사라 맥켄지', 백인남성 재즈 보컬리스트 '베니 베펙'은 첫 내한공연으로 울산을 선택해 전국에서 재즈매니아들이 태화강 대공원으로 몰려들게 했다.

이날 가족단위 시민들과 많은 외국인들은 행사장을 찾아 텐트를 치거나 돛자리를 깔고 재즈의 향연을 즐기는 등 재즈공연이 국제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이 이어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10여개의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이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플라마켓,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도 인기를 끌며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중구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7 개막

“원도심서
문화 향기에
취한다.”

- 22일 중구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7 개막
- 30일까지 9일간 원도심 일원서 그림, 조형 등 140여개 작품

원도심 일원에서 그림과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전람회,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7'이 4월 22일 개최됐다.

울산 중구청과 울산광역시와 후원하고 경상일보사가 주최하는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7(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Project Ulsan 2017 · ICAPU 2017)'은 2013년 문화의 거리 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 개최대는 대규모 거리미술제다.

'안, 도시, 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대미술의 경계 안에서 도시를 배경으로 창작의 딸을 펼치는 곳이 아트프로젝트라는 의미로, 국내외 유명작가 60여명이 참여해 현시대 예술을 조망했다.



안 도시 들

올해 행사는 문화의거리 일원과 인근 민간 갤러리 11곳은 물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인 종갓집 예술창작소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옛 학성여관(마로니에 커피숍), 울산도호부의 도총소(都摠所)였던 태화서원 등에서 진행됐다.

9일간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국내 작가인 권순관, 김교만, 이이남, 이정윤, 유영운, 정정주, 동아대학교 학생팀, 울산대학교 학생팀 등이, 외국작가인 니콜라 루빈스테인(Nicola Rubinstein, 프랑스), 제롬 보터린(Jerome Boutterin, 프랑스), 가오 루원(중국) 등이 참여했다.

울산의 근대화 시기를 함께 한 옛 학성여관 1층에는 김교만 작가가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이중적 환영을 만드는 화면으로 재현과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을 내걸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미디어 맨'이라는 제목으로 잡지와 전단지, 스티로폼 등으로 사람의 모습의 전시물을 만든 유영운 작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거대 매스 미디어의 면면을 대변하는 온갖 인쇄물과 실존적 자아의 관계구도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태화서원에 전시된 정정주 작가의 '응시의 도시'는 소형 비디오카메라와 비디오 프로젝터로 구성돼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공간의 아우라가 어두운 시각적 조건을 통해서 경험되는가를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사람들의 발길을 끈 작품은 '하이힐을 신은 코끼리' 모양의 대형 에드벌룬은 이정윤 작가의 'A Falling Trunk'.

문화의거리 내 야외전시공간에도 1점 더 설치되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시대에 순응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코끼리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공감을 샀다.

작품을 본 김선미(35·부산)씨는 "자신과 맞지 않는 붉은 하이힐을 신고 있는 코끼리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은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되돌아 봤다"며 "왠지 씩씩한 마음이 드는 작품이지만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공감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공예작가들의 작업실이 되고 있는 종갓집 예술창작소에는 완성된 패션소품, 가방, 천연염색 공예품 등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판매장 겸 전시장이 있어 이를 관람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 사람들의 손길을 끌었다.

부대행사로 진행됐던 아트프리마켓과 거리공연, 캐리커처 등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개막 첫 날인에는 개막식으로 '김미정과 k뮤직'팀의 색소폰 연주, '악크 앙상블'팀의 플룻 연주, 울산인디밴드클럽의 공연, 행위예술가 '이혁발'씨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시장소 8개소 이상 관람하고 스탬프를 찍은 시민들에게는 문화의거리 인근 커피숍(숨, 구빙담, 조우, 차담, 페이지104, 피프티세븐)과 울산큰애기야시장 20%할인을 제공해 먹을거리를 즐기는 재미도 더 했다. 





울산 중구 관광 '울산큰애기'가 알린다

울산큰애기 '지방관광 9급'으로
임명...중구 대표 캐릭터로 런칭

출범식과 함께 울산큰애기
SNS 계정 오픈...
중구 관광명소 등 소개 지속



인물 좋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울산 중구 반구동 출신의 '울산큰애기'가 중구 대표 캐릭터로 선정됐다.

중구청은 4월 3일 중구컨벤션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울산큰애기'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울산큰애기'를 울산 중구청 소속 지방관광서기보시보인 9급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박 청장은 "울산큰애기는 울산의 종갓집인 중구의 이미지와 유사한 점이 많아 캐릭터로 삼았다"며 "울산큰애기를 활용해 중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계획인 만큼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대중가요 '울산큰애기'를 부른 가수 김상희씨도 "과거 제가 불렀던 울산큰애기의 딸인 2세대 울산큰애기를 울산 중구에서 직접 보게 돼 영광"이라며 "울산큰애기가 종갓집 중구의 대표 캐릭터로서 전국에 울산 중구를 알리는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 전 직원들은 울산큰애기를 대하는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울산큰애기' 얼굴을 담은 배지를 달았다.

'울산큰애기'는 9급 공무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날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 2차례에 걸쳐 중구의 관광 명소나 숨은 명소를 찾아가 2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스토리를 담아 울산 중구를 알리게 된다.

또 다양한 SNS를 추가로 활용해 울산시와 중구 관광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고, 울산여행과 캐릭터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한 다양한 해시태그를 이용해 국내·외에 울산시와 중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울산큰애기'를 인형과 머리핀, 머크컵, 수첩 등 각종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 중구를 알리는 관광브랜드로 활용하고, 중구 곳곳에 울산큰애기 조형물도 설치해 볼거리 자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말까지 '큰애기'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한 뒤 선정작을 뽑아 깜짝 이벤트와 함께 선물도 전달한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중구 관광안내소 '울산큰애기 하우스' 2층에는 '울산큰애기' 방을 조성해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울산 중구가 직원들의 미소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꾼다.

울산 중구청은 5월 1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직원 미소인사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 직원 미소인사운동'은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친절 관광 상품화에 앞장서고, 친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 직원이 미소인사 실천을 다짐하는 자체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750여명의 전 직원이 참여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방문민원 등에게 미소로 인사하기, 매일 오전 9시 업무 시작 전 전 부서장을 중심으로 아침인사 매일 다 함께 참여하기 등 미소인사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 미소인사와 전화응대 등의 친절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연말 종무식에서 올해의 친절왕과 친절부서를 선발하고, 시상과 함께 인사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전 직원은 물론, 신규직원과 무기계약직 등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하기, 전화·방문민원 응대요령, 사례별 상황극 연출 등의 내용으로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만화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해 내부 행정시스템에 주 1회 연재함으로써 직원들이 친절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속, 정확, 친절의 3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한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을 교육하고, 민원지적과와 세무1·2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미소실명제를 추진해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구청은 5월부터 근무시간 중 전 직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화분 비치 등으로 밝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 조성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도시 중구, 미소로 업그레이드 한다

중구, 전 직원
미소인사운동 추진...
5월 1일 선포식

미소카드제·미소실명제 운영,
친절교육 실시, 친절왕도 선발





“중구 관광 잠재력 인정받다!”

중구 십리대숲, 장애물 없는 관광지인 '2017 열린 관광지' 선정

국비 1억6천만원 등 3억2천만원 투입... 축지형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울산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이 정부가 주관하는 '2017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또 한 번 관광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3일 '2017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자 도심관광지인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을 최종 선정했다. '2017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중구 십리대숲을 비롯해 제주 천지연 폭포, 강원도 정선 삼탄아트마인, 전북 원주 삼례예술촌, 경남 고령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 경기 양평 세미원 등 6개소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중구청은 지난 1월 이 사업 지원 대상에 울산 12경의 하나이자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태화강대공원 내 조성된 도심 관광지인 '십리대숲'을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2차 현장실사를 거쳐 4월 3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5월 19일에는 열린관광지 컨설팅단이 십리대숲을 방문해 사업범위를 오산광장에서 죽림욕장까지로 축소하고 만회정과 죽림욕장, 오산연못 등 3곳을 주요 거점지역으로 하도록 제안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화강 십리대숲은 4km에 걸쳐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대규모 대나무 숲으로 도심이 인접해 대외인지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데다, 평탄한 지형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런 십리대숲에 중구청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화장실·편의시설·경사로 등 개·보수, 장애유형별 안내체계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등을 벌일 경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기존 해설사를 활용해 장애인 대응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하고, 십리대숲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이번 열린 관광지 선정으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함께 문화관광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시와 함께 관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으로 누구나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착착”

지난 2월 정부로부터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 중구가 현판식을 받고,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는 관련 세부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 작업을 마무리한 뒤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서 2019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구청은 6월 9일 청사 현관 앞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중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예술진흥회 등 구 단위의 봉사단체와 관광해설사, U스마일 친절봉사단 등 일선에서 관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 150여명도 참석해 의미를 더 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울산큰애기가 함께 하는 식전공연에 이어 경과보고, 현판제막 및 기념촬영, 환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구 단체장 2명이 대표로 나서 ‘문화관광도시 울산 중구 실현’ 선서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친절과 미소, 청결의 고품격 서비스로 방문객을 맞이할 것과 관광 환경 및 수용태세 정비, 청정자연과 향토문화의 보전 및 전승, 문화관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구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역량 있는 3곳의 중소도시를 선정해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 중구는 지난 2월 전라남도 강진군,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19년까지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도심을 미술을 테마로 한 국내 최고의 오픈갤러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원년인 올해는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고, 컨설팅 작업을 완료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큰애기 캐릭터 기념품 사업과 울산큰애기 관광코스 및 테마지도 제작, 한옥스테이 어련당을 활용한 미술이 있는 온돌방 추진, 성남동 라디오 방송국 운영, 마두희 줄다리기 상설화, 관광청 설립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청사 현관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현판식 개최

관광해설사 등 150여명 참석...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 맞을 것” 다짐

올해 세부계획안 마련, 컨설팅 완료...
2018년 관광인프라 본격 조성





방치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중구 청년쇼핑몰 특별한
입점자들 모집...7월 선정

원도심 내 운영 않던 병원건물
활용...11일 협약식도 가져

향후 10년간 쇼핑몰로 이용...
1층부터 4층까지
18개 점포 입점 계획



울산 중구청이 원도심 내 방치공간의 재창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중구청은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원도심 내 '방치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울산중구 청년 쇼핑몰'에 사업성이 높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은 중구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게 공공건물이 아닌 사유건물의 소유주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 쇼핑몰은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42'에 위치한 과거 '김석주 신경정신과의원' 4층 건물과 옥상까지 모두 활용하게 된다.

해당 건물주는 환자의 감소 등으로 1층을 제외한 2~4층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고심하던 중 중구청의 사업 제안을 받아 문화관광도시의 쇼핑을 담당할 거점건물로 탈바꿈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박성민 중구청장은 11일 오전 10시 2층 중구청장실에서 건물주 2명과 '청년 쇼핑몰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어 5년간 해당 건물을 청년 쇼핑몰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후 5년간 상호협약 하에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기로 약속했다.

청년 쇼핑몰은 각 층별 특화된 업종의 입점자를 선정 중이며,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대형 업종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한다. 점포당 33㎡ 규모로 전체 18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설 계획이며,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력을 가진 업종은 우대한다.

중구청은 1층의 경우 제과제빵과 음식점 등 푸드, 2층은 의류와 공예 등 전시·판매, 3층은 헤어와 메이크업 등 미용, 4층은 출판과 인쇄, 광고 등 출판·인쇄 등의 업종으로 특화할 방침이다. 또 옥상은 쉼터공간으로 조성해 공연과 전시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규 또는 7년 미만의 창업자로,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인이면 가능하고, 지역제한은 없으며, 경력자와 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우대한다.

입점자는 1년 단위계약을 체결하고 월임차료는 부가세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40~60만원 정도로 계약한 층과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중구청은 PT발표와 시연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입점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구청은 시비와 구비 8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외부 시설 리모델링과 각종 이벤트, 공동 마케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밀점검진단을 통해 필요 시 구조보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영업은 시설조성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밑그림 그린다.

울산 중구청이 전국 최초 광역시 내 정부 지정 자연휴양림인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중구청은 4월 26일 2층 소회의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사인 산림조합중앙회 ENG센터는 도심 속 중구만의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과업개요, 추진방향, 조성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현황을 비롯해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전국 최초의 광역시 도심지 내 국가지정 자연휴양림인 만큼 160여곳에 이르는 기존 자연휴양림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휴양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입화산 자연휴양림 속 건물은 목재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친환경으로 제작돼야 한다"면서 "게스트하우스와 숲속의집 등 전체 건축물을 북유럽식 목조 주택으로 지어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고급스러움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수를 개발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아래쪽에 저수지 등을 만들어 물을 끌어올린 뒤 다시 내려보내는 방법으로 물소리가 지속되고, 계곡에 물고기와 가재 등도 서식하는 환경을 조성해 볼거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문객 확대를 위해선 "체험학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버섯을 키워보거나 생육상태를 볼 수 있는 버섯체험장이나 양떼 목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거리가 2.5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모노레일 설치의 경우 "민자유치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편백나무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편백나무숲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수십만주가 심어져야 하는 만큼 구청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 기관과 단체 등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여가복지사업지구를 활용해 '유아 숲 전국대회' 등을 유치해 치름으로써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용역사는 이날 나온 안건들을 취합한 뒤 실시설계에 반영해 7월 중간보고회를 갖고, 2018년 1월쯤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중구 다운동 산47-1번지 일원 참살이숲 야영장을 포함, 전체 39만4천여㎡(약 39ha)에 8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까지 편익위생시설, 휴양시설, 여가복지사업, 산림체험, 치유학습 등 5개 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급화된 건축시설물,
자연과 동화되는 체험시설
적극 발굴·반영





‘병영성 복원 위한 예산 반영 요청’

나선화 문화재청장
병영성 현장 방문

북문 복원 사업비 및
미보상 토지 매입비 등 건의



울산 중구청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병영성 복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나 문화재청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4월 17일 박성민 중구청장, 정갑윤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올해로 축성 600주년을 맞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복원을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참석자들은 중구 병영성 서문지 일원을 시작으로 북문지와 동문지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중구청장은 "토지 매입이 완료된 곳의 성곽정비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 접근성과 거점지점이 될 수 있는 북문 복원이 시급하다"라며 "2018년 사업비에 35억여원에 이르는 '북문 복원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북문 고증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북문을 복원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 사업비에 북문 복원 실시설계비를 존치시킬 것도 요구했다.

이어 남문지 지역은 오랫동안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낙후된 환경의 개선이 어려워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병영성 전반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미보상 토지 부지 매입비' 80여억원을 비롯해 서문 복원비 33억원,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 예산 10억원 상당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병영성의 복원을 위해 정부는 물론, 울산시와 중구청이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병영성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나 문화재청장은 북문 복원 사업비와 관련 실시설계비 존치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지원하고 실시설계비는 존치하겠다"고 약속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또 남문지 부지 매입비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는 문화재 관리·복원 사업의 초석이자 기초인 만큼 최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병영성 복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케 했다.

중구는 2010년 6월 병영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까지 국·시비 153억원 상당을 투입해 병영성 일원 3만2,000여㎡의 시·발굴조사를 벌이고, 북문지~동문지 구간과 북문지~서문지 구간의 성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구, 울산병영 3.1만세운동 재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98주년 울산병영 3.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제18회 재현행사가 4월 6일 중구 병영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재현행사는 병영3.1만세운동의 재현으로 지역 독립운동가의 얼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해 유족과 중구 13개동 주민, 인근 초·중학생과 어린이집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병영에서 일어났던 기미년의 삼일운동 당시 순국한 독립투사 등을 봉안한 삼일사에서 추모제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태극기 물결, 재현퍼포먼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영초에서 병영사거리까지 행진하는 태극기 물결에는 빗줄기와 바람까지 더한 상황 속에서도 2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동참해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또 병영사거리에서 진행된 재현퍼포먼스는 울산시립무용단의 북춤공연과 당시 상황을 재현한 단막극 등이 펼쳐져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이외에도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궤기대회와 어린이 합창대회, 3.1가요제 및 나라사랑 콘서트도 연이어 열렸다.

올해는 처음으로 '나라사랑 부채 만들기'와 '나라사랑 태극기 나무 만들기', '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 '애국열사 감사편지 쓰기', '애국사진관 운영' 등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나도 애국자 체험마당'을 마련해 어린이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병영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일 서울지역의 독립만세 운동 소식을 접한 병영 지역 청년회원과 주민들이 4월 4일 오전 9시 일신학교(현 병영초)에서 축구경기 시축을 신호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시작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일제에 항거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독립을 외친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중구는 선조들의 희생과 빛나는 애국정신을 본받아 지역통합과 발전은 물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물결,
재현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빗속에도 2천여명 참여...
병영지역 독립운동가 열
기리고, 정신 계승



중구, 제2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김경복 한국부인회 울산지부장, 임인도 중구문화원 부원장 중구인상 수상
- 최고령자 2명에 장수노인 청려상 전달...울산출신 가수 윤수일·하동진 공연

제2회 중구 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5일 중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민 중구청장을 비롯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자, 우정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대표, 광역시 승격 이후 계속 거주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구청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울산의 중심 종갓집 중구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민의 날을 5월 15일로 제정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구여성합창단, 울산출신 가수 윤수일의 '태화강연가' 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 식후행사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식을 통해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복 한국부인회 울산광역시지부 지부장과 임인도 중구문화원 부원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식후행사로는 울산출신 가수 하동진씨가 '인연' 등을 부르는 축하공연이 마련됐고, 부대행사로 2층 함월관 로비에 서 차인연합회 주관으로 '봄꽃과 함께하는 우리차 시음회'도 진행됐다.

또 특별 기념행사로 중구지역 내 최고령자 2명에게 장수노인 청려장도 전달했다.

중구 구민의 날인 5월 15일은 지난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도산성(울산왜성)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울산군이 울산도호부로 승격된 날이다.

박성민 구청장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종갓집을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혁신도시와 상생, 장현도시첨단산단 등 중구르네상스를 활짝 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삼아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 종갓집 중구를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채용박람회 '성황'

- 가나기업 등 20개 업체 직접 참여...간접 30개 업체도 참여
- 전체 254명 채용 예정에 1,300여명 몰려...적성검사, 이력서 작성 등 지원

울산 중구청이 4월 11일 연 '2017년 상반기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지역민 1,300여명이 참여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아닌 20~4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방문해 이력서 접수와 면접까지 보면서 달라진 박람회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주)가나기업, 아름산업, 두드림협동조합 등 울산지역 내 20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받고 면접을 진행했다. 또 주식회사 엔텍글로벌과 금영금속 등 30개 업체는 이력서만 현장에서 접수하는 간접 업체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는 녹산기업 등 타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구직자를 요구하는 업체도 함께 했다.

박람회 참가업체들은 시급부터 월급, 연봉까지 지급되는 급여와 운전면허증이나 문서작성 여부 등 필요한 자격증과 능력 등을 제시하고, 통근버스 운영여부와 상용직 전환검토, 자녀학자금 지원 등 각자의 장점을 어필했다.

특히, 올해는 노인이나 생활고를 겪는 소외계층 보다는 경력단절 여성 등 20~40대 여성과 대학을 졸업한 남성 구직자들이 주를 이뤄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중구청은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력서 작성을 돕거나 취업상담을 진행했고, 중구시니어클럽은 이력서 작성을 위한 사진을 무료 촬영을 제공했다.

또 박람회에 참여한 울산고용센터와 다중기능교육연구소는 직업적성검사와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지문을 통한 선천적 적성과 성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구직자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이 같은 박람회에 처음 참여한 장모(25·여)씨는 "생산직 일자리를 찾았는데 2곳에 이력서를 냈다"면서 "회사에서 믿고 맡겨주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만큼 꼭 뽑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용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 현장을 찾은 1,300여명의 구직자 가운데 395명이 이력서를 낸 뒤 현장에서 1차 면접을 보거나 향후 면접을 통보받기로 했다.

적성검사와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무료 사진촬영 등에는 모두 880여명이 참여해 이력서 작성 등에 도움을 받았다.

한편, 중구청은 2016년 상·하반기 일자리채용박람회를 운영한 결과, 2,000여명이 방문해 이중 688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했고, 전체 89명이 최종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올 여름 더위도 울산 중구에 맡기세요.”

- 동천·다전야외물놀이장 등 4곳 20일 일제 개장
- 물 절약, 수질관리 위해 신형 가압식필터 여과기 운용



“뜨거운 여름, 중구 야외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울산 중구가 지역 내 4곳의 물놀이장을 6월 20일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나기에 나섰다. 중구청은 6월 20일 오전과 오후 동천과 다전야외물놀이장에서 박성민 중구청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동천과 다전에 새로 설치된 인공아자수와 LED 조명 등을 둘러보며 "이색적이다", "아이들이 더욱 좋아할 거 같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올해도 야외물놀이장이 여름철 피서지로 많은 인기를 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중구청은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다전물놀이장의 주차면수를 지난 해 250면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290면으로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편의도 더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물놀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과 인력을 보강했다면 올해에는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수질관리와 물 절약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다전야외물놀이장에는 기존에 설치된 여과기 3기를 계속해서 운용하고 동천야외물놀이장에는 새롭게 설치된 가압필터 여과기 2기를 운용한다. 새롭게 설치한 가압필터 여과기는 1 μ m까지의 입자성 물질도 제거가 가능하고 소독과정에서 사멸되지 않는 일부 병원성 미생물까지 제거해 서울의 야외수영장 7개소와 부산의 야외수영장 2개소 등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된 모델이다. 또한 유입수가 여과장치를 거쳐 약 2초안에 여과수로 배출됨에 따라 짧은 시간에 대용량의 물을 여과 처리할 수 있어 물의 재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물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압필터 여과기의 운용으로 연간 3천만원의 수도요금을 900만원 수준으로 절감했던 서울 잠실 야외수영장의 사례처럼 중구 역시 수질 향상과 물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중구의 야외물놀이장은 도심 속 여름 피서지로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인 기름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등 물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동천과 다전야외물놀이장에는 각각 6만7212명과 5만7435명이 방문해 울산을 대표하는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았다. 



중구 올해 물놀이장 하나 더 늘었다.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놀이터에 복산물놀이장 준공
- 조합놀이대, 파고라, 나뭇잎 샤워 등 조성... 오는 20일 개장식

동천과 척과천변 등지의 물놀이장으로 여름철 울산의 새로운 피서지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놀이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중구청은 중구 중가8길 66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중구지역 내 4번째로 '복산물놀이장'을 지난 8일 완공하고 6월 20일 준공 및 개장식을 가졌다.

'복산물놀이장'은 지난 2015년 9월 15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 개관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존 육아지원 서비스는 물론, 놀이와 휴게공간 제공을 통한 영유아의 발달 도모를 위한 바깥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야외놀이터를 겸해 건립됐다.

중구청은 복산물놀이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추경정예산을 확보해 같은해 11월 시설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17년 3월 착공해 지난 14일 준공했다.

전체 4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복산물놀이장'은 전체 600㎡ 부지에 298㎡ 규모의 조합놀이대와 나뭇잎샤워, 버섯과 동물조형, 파고라, 막구조 등을 갖췄다.

특히, 미키마우스를 형상화한 동선과 시설물 배치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공간으로, 이외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상시 개방해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 중구



중구, 산전배수장 이전증설 완료

- 배수펌프 3대 등 설치...배수능력도 크게 향상

울산 중구청이 산전배수장의 이전증설을 완료하고, 관련 설비의 시험가동을 완료했다.

중구청은 5월 16일 동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산전배수장을 이전증설하고, 배수펌프와 제진기 등 내부 기계와 전기 설비 전반에 걸친 시험가동을 실시했다. 산전배수장 이전증설은 기존 배수장의 노후와 배수펌프 효율저하, 최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기준상향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기존 배수장 부지인 동동 427-11번지가 동천재방도로 개설 계획에 따라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신규 부지인 455-2번지로 이전이 확정됐다.

중구청은 이를 위해 산전배수장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취약방재시설로 지정하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77억원을 투입해 이전증설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이전증설된 산전배수장은 161.28㎡ 규모의 배수펌프장 1동과 1,440㎡ 규모의 유수지를 갖췄으며, 배수펌프 D800mm와 제진기 각각 3대, 길이 229m의 유입배수로, 배수문 2개소 등의 시설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당 156㎡의 배수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260㎡로 100㎡ 가량 배수능력이 향상돼 집중호우 등에 대처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중구보건소, 미아방지 정보수집 키트 지급

- 올해 지역 최초로 추진...
2017년 중구지역 내 출생가정 대상

울산 중구보건소가 지역 최초로 올해 출생가정에 '미아방지 정보수집 키트'를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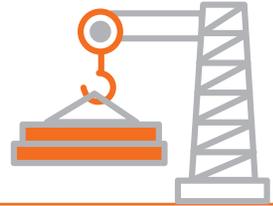
중구보건소는 소중한 아이의 유전자 정보를 안전하게 가정에서 보관해 아이를 잃어 버렸을 때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아방지 정보수집 키트' 제공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정 2,000명 정도로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경우다.

지급되는 용품은 '미아방지 DNA 지문 보관키트'로 가정에서 아동의 DNA정보 즉, 구강 내 상피세포와 지문,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혈액을 채취해 보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아발생 시 키트에 보관된 DNA를 경찰에 제공해 정보등록함으로써 이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아를 찾아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용품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비치된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검토 후 용품을 직접 수령가능하다.





“모기 걱정없는 십리대숲으로 오세요.”

울산 중구보건소가 지역의 관광 명소이자 한국 관광 100선인 태화강 십리대숲에 모기트랩을 설치했다.

중구보건소는 5월 초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흰줄숲모기의 주 서식처인 태화강 대숲 산책로 일원에 유인물질인 CO₂를 이용해 모기를 채집하는 모기트랩을 깔았다.

모기트랩 설치에 모기가 좋아하는 CO₂를 이용해 모기를 유인, 채집하는 장치로 궁극적으로는 모기 개체수 감소를 통해 여름철 대숲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모기물림 방지와 쾌적한 도심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보건소는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산광장 입구부터 야외공연장 입구까지 산책로 약 1.3km 구간에 걸쳐 60m 간격으로 총 22대를 설치했다. 모기트랩은 지난 3월 학성배수장과 태화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디지털 모기측정기와는 달리 모기를 유인해 채집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게 된다.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모기 유인물질과 화학물질을 이용해 설치 장소 반경 30m 내 암모기만을 유인·채집하고, 이를 계수한 뒤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실시간 모기 측정을 통한 기간별 모기 발생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십리대숲의 모기트랩 설치에 대나무가 음이온과 피톤치드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화학약품에 의존하는 방제는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

중구보건소는 시험 가동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모기트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구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대숲 산책로 입구 3곳에 모기기피제 분사기를 설치·운영했으며, 올해에도 모기트랩과 병행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중구보건소 십리대숲에 모기트랩 22대 설치
- 모기 유인물질 이용 채집...1.3km 구간 설치로 이용객 편의



중구, 울산 유일 재난관리 ‘우수’ 평가

- 국민안전처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장관표창, 재해예방사업 보조금 1,500만원 지원 받아

울산 중구청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중구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5월 16일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오는 7월 중순쯤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정부포상으로 '장관표창'을 수여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재난관리평가'는 울산시와 중구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자체와 교육부와 국방부 등 19개 중앙부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55개 공공기관 등 전체 3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 평가는 지난해보다 대상기관을 30여곳 이상 확대시켰고, 전문평가단 위촉과 위원회 개최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과 복구과정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 실태 ▲안전관리체계와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기금의 운용현황 등 4개 분야 41개 지표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중구청은 이번 평가에 재해문자전광판 신규 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2개 시책사업을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 중구노인복지관 |

◆
어버이날
기념식



| 2017 종갓집 중구 | ◆ 어린이 큰잔치 개최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
어린이날
행사 개최



2017 울산 마두희 축제,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다

박삼동 기자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3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 중구의 주요 축제인 "2017 울산 마두희 축제"가 지난 6월2일부터 4일까지 문화의 거리와 성남동, 태화강변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015년보다 10만여명 이상 증가한 48만여명이 전국에서 다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큰줄당기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6천원의 참가비를 받았음에도 3000여명의 시민들이 신청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5천원 상당의 마두전과 기념 티셔츠, 새기 모양의 팔찌 기념품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나눈 것은 물론, 축제기간 동안 원도심 일대의 식당과 카페 등 업소들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다.

첫째날인 2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동헌에서 단오맛이 한마당이, 태화강변에서는 비녀목 설치와 용선 시승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으며, 둘째날인 3일에는 동대항 골목 줄다리기와 주행사인 큰 줄당기기가 열려 축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또 이날 저녁 태화강변에서 열린 인디밴드 페스티벌에도 수많은 관객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공감하였으며, 마지막날인 4일에는 울산 큰애기 선발대회와 프린지 공연 등이 이어졌고, 폐막식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로 초여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올해 축제는 단오(5월30일)에 이어 개최되어 역사적 전통을 살리고, 기존 원도심에서만 열리던 것을 태화강변으로 장소를 확대하였으며 줄 제작과 단오선 만들기, 전통의상 등 체험 행사가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마두전을 도입해 원도심의 참여업소와 태화강 푸드트럭, 큰애기 야시장 등 100여 곳에서 행사기간 동안 화폐와 똑같이 사용가능하게 하여 재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큰 줄 당기기에는 필자도 중구뉴스 기자들과 함께 직접 참여해 의미가 남달랐다.

문화의 거리와 큰애기 야시장, 넓고 아름다운 태화강을 안은 마두희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계승되길 기대한다. 지역의 화합과 번영은 물론 울산 전체를 넘어 전국으로 더욱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찾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울산마두희축제를 꿈꿔본다.

중구는 나의 제2의 고향

김정숙 기자



우정동에서 시작해 어느덧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중구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제 울산 중구는 나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최근 내 삶의 터전인 중구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 기회가 있었다.

지난 5월 15일 중구뉴스 기자단은 문화의거리 등 원도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없이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을 살짝 비켜나니 근대식 건물이 단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옛 골목은 똑딱길, 고복수길로 조성되어 아기자기한 정취와 멋을 뽐내고 있었다. 새삼 중구 원도심의 깊은 역사와 멋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때 침체되었던 원도심은 이제 시내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많은 젊은이들로 붐비고 상가는 활기가 넘친다. 원도심의 터줏대감인 중앙전통시장은 밤이 되면 울산큰애기 야시장으로 모습을 바꿔 맛깔나는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원도심에서 한껏 들뜬 분위기는 태화강변과 십리대숲으로 나아가면 아름답게 정돈된 모습에 여유와 낭만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바뀐다.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고 있다.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또 오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 역사의 흔적과 변화의 에너지가 가득한 울산 중구가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중구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울산과 중구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오래 머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2017 입화산 걷기대회

구은정 기자



4월 1일, 비가 온다는 예보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밤새 비가 온 뒤 날이 개었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다운중학교 운동장에 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일찌감치 2,400명이 등록 마감되었다는 소식에 이번 걷기대회에 대한 중구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줄을 지어 입화산 참살이 숲 누리길로 들어섰다. 산으로 들어가니 분홍색 진달래가 멀리서 우리를 반기고, 진정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숲속의 짙은 솔향기 가득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한참을 걸었다. 다운목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왔다. 입

화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니 정말 놀라웠다. 탁 트인 전망과 예쁜 구릉지에 자리를 내린 어린 보리밭이 장관이었다. 자연은 거짓없이 계절에 순응하며 지내는 것 같아 자연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은 해발 204m로 높지 않지만 성안동과 울산을 내려다 볼 수 있었고, 활짝 핀 진달래 군락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걷기대회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다.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힘들 줄 모르고 입화산을 오르내렸다.

명산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심지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내려오는 길에 노부부를 만나 입화산에 대해 여쭙보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분들도 중구에 오래 사셨는데 입화산은 처음인데 다 좋았으며 미소 지으셨다. 정말 가까이에 보석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남에 입화산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도시 텃밭 개장

이명기 기자



도심에서 텃밭을 가꾸어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일 것이다. 최근 옥상텃밭, 도시농부에 대한 관심이 이를 반영한다.

최근 중구청에서 도시 텃밭을 분양한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지난 3월 25일 약사동 1번지 일원에 2,380㎡ 규모로 조성된 텃밭을 100개 구좌로 나눠 중구지역 주민에게 분양하였다. 2월경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이용자를 선정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대당 2구좌(구좌당 4평)까지 신청 가능하였다. 개장 당일에 제비뽑기로 부지를 배정받고 이름표를 받아 부착하면 나만의 텃밭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도시 텃밭의 이점은 여럿 된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편히 이용할 수 있고, 밭갈이를 미리 해놓은 상태로 분양이 되므로 고랑작업부터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농사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일에는 씨앗도 배부해 씨앗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지난해의 경우 김장철에는 배추모종과 무씨앗까지 나누어주니 저렴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의 경쟁이 꽤 치열하다고 한다.

유기농, 친환경 식품이 비싼 가격에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텃밭의 인기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중구의회, 구민 복리증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서경환 의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긴급 촉구안 채택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고 직·간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 유지 건의안」도 채택해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전달했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장기간 시민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실내수영장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울산시에 전달했으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공공기관 이행사항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킴이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중구의회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늘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기초의회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동천 및 다전 야외물놀이장을 찾아 현장활동 중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복희)는 지난 5월 제1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동천과 다전 야외물놀이장을 찾아 현장점검활동을 펼쳤다.

동천야외물놀이장은 올해 10억4,900만원을 들여 풀장을 바다과 벽면 타일을 보수하고 여과기 2기 설치, 파라솔 보강, 탈의실 및 화장실 수리 등의 보수작업이 이뤄졌다.

중구 다운동 다전물놀이장 역시 올해 4억2,800만원이 투입돼 풀장 시설을 보수하고 주차장 진입로 및 노면을 정비하는 등 시설확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개장을 앞둔 동천과 다전 물놀이장을 찾아 시설 보강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과 보완점은 없는

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은 “매년 여름이면 중구민은 물론 울산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천과 다전야외물놀이장이 올해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벌였다”며 “중구의 현안사업과 관련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망설이지 않고 현장방문 및 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중구문화원을 찾아 마두희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회기 때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평생학습과, 중구생활문화센터(종갓집예술창작소) 등 관내 주요 시설을 찾아 활발한 현장점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주요 현안사업 현장점검



문화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을 찾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성봉)는 지난 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약사천과 성안천, 사곡천 등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유실피해를 입은 관내 주요 하천의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성안천과 약사천은 태풍 당시 유실된 제방 복구를 위해 국·시·구비 13억4,000만원을 투입해 정비 및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며 사곡천은 제방 1,490m 구간에 대해 5억3,500만원을 들여 복구작업을 벌였다.

현장을 찾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완할 점 등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며 점검활동을 펼쳤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또 원도심에 건립중인 문화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찾아 준공 마무리 단계인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지난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옥곡공영주차장과 동천자전거문화센터를 찾아 현장활동을 펼쳤으며 앞선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체류형 농촌마을을 조성예정지와 장현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등을 찾아 사업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애로점과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중요하다”며 “곧 다가올 장마 등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점검활동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승계한 오세라 의원, 울산 중구의회 의정활동 시작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직후 기념촬영에 나선 중구의회 의원들

울산 중구의회에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다문화 가족 출신 기초의원이 탄생했다.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지난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세라 의원에 대한 배지 전달식을 가졌다.

중구의회에서 새롭게 의원직에 오른 오세라 의원은 전 비례대표였던 하경숙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꺾원된 중구의회 의석 승계(공직선거법 제 200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됐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오세라 의원은 200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2010년 귀화했다.

중구의회는 또 지난 5월 11일 열린 제1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라 의원에 대한 의원선서와 상임위원회 배정 의결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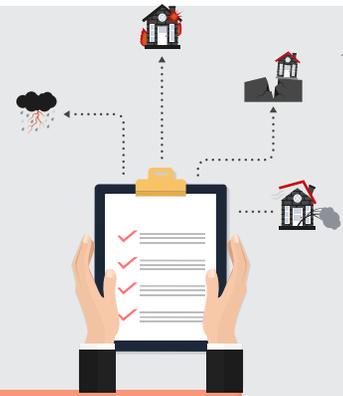
오 의원은 “비록 1년여의 짧은 임기이지만 울산지역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싶다”며 “아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오 의원이 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5만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과 헌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사고 등 큰 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든든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17. 1. 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비교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	- 대인 : 1인당 1.5억원(사고당 무한) 등 - 대물 : 10억원	- 사전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보상사고	-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 재산 피해 보상	- 영업장내 모든 사고
가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지상1층으로 100㎡ 이상업소 - 숙박업소 - 그 외 17종 시설 ※ 위 시설에 해당할 경우 의무보험	※ 사업자 자율 가입 보험
보험료	- 연간 2~3만원 내외	- 연간 30~40만원 내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 ▶ 신규업소는 허가등록 · 신고 ·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 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업소는 2017. 7. 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구분	과태료	비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한국선거방송을 소개합니다!

이름 한국선거방송(한글), eTV(영문)

방송매체 KT IPTV, 채널 273, IPTV(KT 플레TV)

방송개시 2017년 4.26

다문화 채널 205, 케이클방송(다문화)

방송개시 2017년 5.1

*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어요!

한국선거방송(eTV)!

국민이 공감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한국선거방송 주요 프로그램 소개

선거정보와 방법정보를 한 눈에

- 제1차 대선 투·개표 생중계 등
- 선거공약(1차~4차)
- THE VOTE
- 투표 안전장벽
- 사전투표개표의 모든 것
- 선거뉴스
- 공약선법 특강

민주시민 교육 어렵지 않아요.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도토리카데미, 외국어 민주시민 교육은?

문화·예술과 접목한 선거이야기

- 이제는 신메디
- 다작당 (인문학/정치/영화)
- 이제껏 생각하지 않던 선거

선거·정치 관련 정보를 원하는 장소에서!

각종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중구선거관리위원회
JUNGGU ELECTION COMMISSION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이것만 지키면 안심!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수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질환입니다.

주요 발생시기

해수 온도가 18℃ 이상 되는 여름철 7~9월에 주로 발생

1~6월 7~9월 10~12월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

균의 취약점

냉장 5℃에서는 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60℃ 이상 열에 아주 약함

감염경로별 주요증상

	경구감염	피부감염
발병시기	6~10월	
주 감염경로	어패류생식	피부상처
잠복기	24~48시간	12시간
주요증상	발열, 오한, 구토, 수포, 궤양	

비브리오패혈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어패류 구입 시 가급적 5℃이하로 저온 보관

씻감용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칼, 도마 등 열탕소독 건조 후 사용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은 후 섭취

85℃ 이상에서 가열처리 하여 섭취

개인이나 위판장 등 공동위생 철저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벗옷을 접촉 금지

간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

! 특히 주의하세요!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만성종양, 폐렴, 동맥경화, 백혈병, 면역결핍환자 등

4만여명 문화도시 풍광김중구

2017 울산 중구 야외물놀이장

요금안내

- 어린이 (만5세~만12세) > 2,000원
- 청소년 (만13세~만18세) > 4,000원
- 성인 (만19세이상) > 6,000원
- 워터슬라이드(입입이중권) > 2,000원

*성인, 청소년 물놀이권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강면대상

- 50%**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이상, 다자녀가구
- 30%** 자원봉사자를 소제할 본인

*주민등록증, 등·초본 증명자료 제시

중구 야외물놀이장을 중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 직접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국공모〉 2017 울산 중구 네번째

울산의 역사문화 중심지이면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 중구에서 전국 대표 한글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역량있는 문화예술인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홍익글씨미술대전

| 공모기간 |

2017. 4. 24[월] ▶ 8. 23[수]

- 전시장소  **중구문화의전당 전시장**
- 작품접수 2017. 8. 23(10시~18시까지)
- 전시기간 2017. 10. 9(월) ~ 10. 27(금)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 18세 이상인자
- 응모분야 **한국화**(민화 포함), **서양화**(수채화, 판화), **조소**(입체, 설치), **공예**(도자기, 목공예, 섬유, 금속, 기타공예)
디자인(시각, 제품, 공공환경, 패션, 기타), **서각**, **한글서예**, **문인화**, **사진**
- 모집요강 **울산중구문화원 홈페이지**(<http://www.munhwa21.org>) 문의 : 052)244-2007~8
- 시상내역
- **대상(외솔상)** : 입체 1명(1,000만원-매입비 포함), 평면 1명(400만원-매입비 포함)
 - **최우수상(7명)** : 한국화 / 서양화 / 조소 / 공예 / 디자인 / 서각 / 서예 / 문인화 / 사진
(대상부분 제외 7개분야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우수상(9명)** : 한국화 / 서양화 / 조소 / 공예 / 디자인 / 서각 / 서예 / 문인화 / 사진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특선·입선(약간 명)** : 상장

※ 모든 부분 주제는 본 대전취지에 부합되어야 함.